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자체 안보 역량 확보 위해 우주·드론 분야 민관 협력 강화
- 단신
 - [자동차] 유럽-중국 자동차제조사, 합작법안위탁생산 등 유럽 현지 생산 협력 구체화
 - [기후] 유럽 폭염·가뭄으로 주요 하천 저수위 심화... 물류·전력공급 차질 확대
 - [운송] 중국 선사, 북극항로 최초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개시 예정
 - [PPWR]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 의견수렴 진행(8.6~9.10)
- 무역관 행사 안내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8.20)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8.31(월)~9.1(화)	EU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 개최
9.9(수)	공공조달법, 유럽혁신법 발표
9.14(월)~17(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9.23(수)	알루미늄 스크랩 공급망 의존도 완화 조치 발표
9.30(수)	유럽제품법(European Product Act) 발표(유럽제품규정 개정, 표준화규정 개정 등)

EU, 자체 안보 역량 확보 위해 우주·드론 분야 민간 협력 강화

- ◎ EU 집행위원회, 독자적인 위성 인프라 확보를 위해 민간 컨소시엄과 이행 협약 체결
- ◎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총 348기 규모의 위성군 구축 예정, '29년부터 첫 위성 발사 계획
- ◎ 민간 방위 기술 기업을 주축으로 EU-우크라이나 드론 연합도 출범, 9월 중 첫 회의 예정

□ EU의 독자적인 위성 네트워크 인프라 IRIS², 본격적인 구축 단계 돌입

- EU 집행위원회, SpaceRISE 컨소시엄과 IRIS² 구축 이행 협약 체결
 - 집행위원회는 역내 우주·통신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SpaceRISE'와 함께 독자적인 보안 위성 인프라인 IRIS² 구축 및 추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행 협약을 8.7일 체결
 - 러-우 사태 이후 EU는 위성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타링크 등 일부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IRIS² 도입을 추진('23.3월 발효)
 - 이번 협약을 통해 EU와 컨소시엄은 '29년부터 단계적 위성 발사를 포함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위성 개발 및 배치, 발사 서비스 조달, 보안 지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함

<IRIS²(회복·연결·보안을 위한 위성 인프라,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Interconnectivity and Security by Satellite)>

- (추진 경과) IRIS² 도입을 위한 법안 발효('23.3월) 후, 민간 사업자 모집 및 자금 조달 과정을 거쳐 '24.12월 집행위원회-유럽 우주국(ESA)-SpaceRISE 컨소시엄 간 초기 계약 완료, '26.8월 사업에 대한 기술 검증, 예산 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이행 협약 공식 체결 완료
- (SpaceRISE 컨소시엄) SES, Eutelsat, Hispasat 3개 유럽 위성 운용사가 컨소시엄을 주도하며, 에어버스(Airbus), 탈레스(Thales), OHB, 에어로스페이스랩(Aerospacelab) 등이 제조·기술 파트너로 참여

- IRIS² 이행 협약의 주요 내용
 - (목적) 역내 회원국 정부, 군, 경찰, 소방 등 공공 안보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위성 통신망을 제공할 예정, 아울러 민군 양용 드론, 원격 의료, 극지방 통신, 재난 위기 대응, 음영 지역의 상업용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 (규모)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계획보다 66개 위성을 추가, 최종적으로 저궤도 위성 330개 및 중궤도 위성 18개로 총 348개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 구축 확정, 향후 특정 임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위성을 추가할 예정
 - 특히 이번에 추가된 고성능 저궤도 위성 66대는 방위·안보·긴급 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예정, 추가된 위성을 통해 EU 회원국 전용 보안 통신 용량이 60% 증가했으며, 글로벌 커버리지는 54% 증대됨

- (자금 조달) IRIS² 구축을 위한 총 투자금은 156억 유로 규모로 이 중 116억 유로는 공공 자금, 40억은 컨소시엄의 3대 주도 기업이 조달할 예정
- 공공 자금은 EU의 '28~'34년 예산(MFF, 다년도 재정운용계획)과 개별 회원국의 필요에 따른 추가 투자로 조달될 예정, 현재까지 폴란드 6억 5,600만 유로, 헝가리 5억 유로, 스페인 16억 유로를 투자할 전망이며 다른 회원국도 추가 기여를 검토하는 중
- (추진 일정)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9년 중 첫 위성 발사 계획, '30년부터 승인을 받은 EU 회원국 정부 및 방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기 보안 통신 서비스 개시 예정, 추후 위성망 구축 완료 시 민·관 서비스 전면 운용 개시

□ EU, 역내 드론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산 집행 및 민관 협력 가속화

- EU, 방위 산업의 우선순위로 드론 산업을 주목하고 관련 프로젝트 적극 추진
- EU는 드론을 공동관심 유럽방위프로젝트(EDPCIs)의 5대 핵심 분야 중 1순위 과제로 확정하고 다양한 방위 정책에서 드론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참고) EU의 공동관심 유럽방위 프로젝트(European Defence Projects of Common Interest)

회원국 간 파편화된 방산 조달을 통합 및 대규모 무기 체계 공동 개발을 위해 도입된 프레임워크로 ①드론·안티드론 시스템, ②해양·해저 방어, ③우주, ④대공 및 미사일 방어, ⑤동부 전선 방어 등 5개 분야를 핵심 분야로 지정, 드론·안티드론 분야에 '33년까지 최대 50억 유로 규모 민·관 공동 투자 계획

-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구매를 지원함과 동시에 EU-우크라이나 간 드론·안티드론 시스템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드론 딜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드론 딜과 연계된 대공 방어 지원에 34억 7천만 유로를 지급(7.30)
- * 드론 딜(Drone Deal)은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을 역내 방산 공급망에 결합해 유럽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대규모 공급망 통합 프로젝트로 드론·안티드론 시스템, 장거리 무인기 공동 생산 예정
- 또한 드론 공동 생산, 차세대 모델 개발·생산·조달을 위해 드론 연합을 출범하고 공개 모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창립 회원사를 선정, 9월 중 첫 회의 개최 예정

(참고) EU-우크라이나 드론 연합(Drone Alliance)의 18개 창립 회원사

- (EU) ORQA d.o.o.(크로아티아), Indra Group(스페인), Fincantieri(이탈리아), WB Electronics/WB Group(폴란드), Destinus(네덜란드), Delair(프랑스), RSI Europe(리투아니아), TERMA A/S(덴마크), Quantum Systems(독일)
- (우크라이나) LLC Skyfall Industries, LLC Greentech Harvest, LLC Tencore, LLC Deviro, LLC Vyriy Industry, Scientific production Company 'ATHLON AVIA' LLC, LLC TEHAVTOFART PIVDEN" (TAF Industries), UFORCE, F-Drones

• 자료 : EU 집행위원회(8.7, 7.17)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unooin@kotra.or.kr)

□ [자동차] 유럽-중국 자동차 제조사, 합작법인·위탁생산 등 현지 생산 협력 구체화

- 유럽 자동차 판매 저조 및 낮은 현지 공장 가동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자동차 기업과 생산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
- (유럽 자동차 판매세 회복 지연) 유럽 자동차 판매 규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300만 대 낮은 수준으로, 판매세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
- (유럽 자동차 공장 가동 현황) 유럽 현지 언론 FT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장 가동률은 60% 미만이며, 약 250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자동차 기업 유럽 점유율 확대)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자료*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기준 SAIC·BYD·체리자동차·립모터 등 중국 4개사의 유럽** 신규 승용차 등록 점유율 합계는 7.9%로, 전년 동기(3.9%) 대비 4.0%p 상승
- * ACEA 제조사별 자료를 합산 ** EU·영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기준, '26년 수치는 잠정치
- '26.8.5일 기준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중국 기업 간 주요 생산 협력은 △합작법인 설립, △위탁생산, △기존 생산시설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추진 중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중국 기업 간 주요 생산 협력 동향>

기업명	협력기업명	협력 동향	세부 내용
스텔란티스 (Stellantis/ 이탈리아· 프랑스·미국)	립모터 (Leapmotor/중국)	협력 확대 검토 (‘26.5.8일 발표)	· 스페인 사라고사 소재 공장에서 립모터 B10 모델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6년 내 생산을 개시하는 방안 검토
	둥펑 (Dongfeng/중국)	비구속적 양해각서 (MOU) 체결(‘26.5.15일)	· '26.5.15일 비구속적 MOU 체결 후 5.20일 스텔란티스 51%-둥펑 49% 지분의 유럽 합작법인 설립구상을 발표하고, 프랑스 렌 소재 공장에서 둥펑 신에너지차(NEV)* 생산 검토 * New Energy Vehicle: 중국에서 사용하는 차량 분류 표기로, 배터리전기차(B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수소연료전기차(FCEV) 등을 포괄
포드 (Ford/미국)	지리자동차 (Geely/중국)	합작법인(JV) 설립 합의 (‘26.7.23일)	· 스페인 발렌시아 소재 공장에 포드 66%-지리자동차 34% 지분 구조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규제당국 승인 후 '27년 상반기 운영 및 '28년 차량 생산 계획
폭스바겐 (Volkswagen/ 독일)	샤오펑 (XPeng/중국)	협업 단계 (‘26.5.13일 FT 보도)	· FT에 따르면, 샤오펑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와 유럽 공장 인수 가능성 협의 중
닛산 (Nissan/일본)	체리자동차 (Chery/중국)	비구속적 양해각서 (MOU) 체결(‘26.6.3일)	· 영국 선덜랜드 소재 공장에서 이르면 '27년 회계연도부터 체리의 승용차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자료: FT 등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는 중국 기업과의 생산 협력을 통해 기존 공장의 가동률 제고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중국 자동차 기업은 유럽 생산거점을 확보할 수 있음

• 자료 : FT(8.5), ACEA(7.23) 등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황준혁(jh10535@kotra.or.kr)

□ [기후] 유럽 폭염·가뭄으로 주요 하천 저수위 심화... 물류·전력공급 차질 확대

- 독일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의 기록적 저수위로 내륙 화물선의 수송능력이 저하되면서, 주요 산업의 물류 차질과 운송비 상승 부담 가중
 - 라인강 카우프 수위(Kaub gauge)*는 '18년 기록적 가뭄 당시 최저 수준인 25cm 까지 하락했으며, 뒤스부르크항의 화물선 적재량도 평시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
 - * 라인강의 주요 운항 병목지점인 독일 카우프에서 측정하는 수위 기준으로, 선박의 운항 및 화물 적재 가능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 선박당 적재량 감소로 동일 물량 수송에 필요한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석유제품 수송 운임은 톤당 200유로까지 상승
 - 기업들은 저수심 운항 선박 투입과 철도·도로 대체 수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과 제한적인 수송 여력으로 자동차·화학·철강 등의 공급망 차질 우려
- 다뉴브·뫼즈·모젤 강 수량 감소로 원전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루마니아·헝가리·프랑스에서 원자로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 확산
 -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2기 중 1기가 정지됐고, 헝가리 팩스 원전은 가동률이 10% 수준까지 저하, 프랑스에서도 원자로 3기의 가동 중단
 - * 8.9일 기준, 루마니아 지역 다뉴브강 유량은 1,400m³/s로 8월 평균유량(3,900m³/s)의 1/3 수준
 - 루마니아 정부는 수로 준설과 바지선을 활용한 물길 유도 등 긴급조치로 냉각수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물 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원전 추가 가동중단과 전력수입·수요 감축 필요성이 커져 역내 전력수급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자료 : Euractiv([8.7](#)), inbox.eu([8.6](#))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운송] 중국 선사, 북극항로 최초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개시 예정

- 중국 컨테이너 선사 씨레전드(Sea Legend)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경유하는 중국 닝보항과 영국 펠릭스토우항 간 북극항로 최초의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빙상 실크로드(Ice Silk Road)'로 명명된 동 서비스는 매주 운항하며, 북극권 해빙 상황에 따라 통상 약 40일 소요되는 운항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할 전망
 - 북극항로 운항 건수는 '24년 15건에서 '25년 역대 최대인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해운 업계는 운항 시간 및 비용 절감과 함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해상 병목 구간 및 분쟁 지역 우회 가능성에 주목
 - 동 항로는 28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 관할 기관이 해빙 상태에 따른 구간별 운항 지침을 적용하고, 로사톰이 통항 허가를 결정
- 북극 해빙 감소로 항로 활용 가능성과 내빙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 훼손 우려와 운항 안전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등은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

- 지난해 건조된 내빙선은 167척으로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64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이나, 머스크(Maersk) 등 다수 유럽 선사는 북극 생태계 훼손 우려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 환경 문제 외에도 고위도 지역의 GPS 장애와 유사시 채빙 지원 부재에 따른 선박 고립 가능성, 제한적인 사고 대응 역량 등 안전 문제*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기됨
- * 최근 10년간 북극권에서 발생한 500건 이상의 해운 사고 중 약 절반이 기계 손상·고장에 따른 사고로 보고됨

• 자료 : FT(8.10)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PPWR]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 의견수렴 진행(8.6~9.10)

-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제44조에 근거해,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producers)에 대한 등록 및 보고용 표준 양식과 제출 정보를 구체화한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

(참고) PPWR 제44조에 따라 EU 회원국은 생산자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등록부를 마련해야 함. 생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해당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 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한 경우 PRO가 대신 의무 이행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등록 및 보고에 따른 생산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이행 규정을 마련
- **(등록 양식)** △생산자 기본 정보(Part A), △생산자의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 이행방식 신고(Part B), △공인 대리인 정보 등록(Part D) 방법을 규정
- 또한 생산자가 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 책임조직(PRO)에 위탁한 경우, PRO가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이를 증빙하는 양식을 제시(Part C)
- **(보고 양식)** △생산자별 포장재 공급량, △특정 유형 포장재 분리수거량, △EU 역내 및 역외에서 회수·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량에 따라 상이
- 구체적으로 연간 역내 회원국 포장재 출시량이 10톤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양식이 나뉘며(Part A·B), EU 역내(Part E)와 역외(Part F)에서 처분·회수·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량을 구분하여 보고해야 함
- 또한 용량 3리터 이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음료 용기의 분리수거량(Part C)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포장폐기물 수거량(Part D)에 대해서도 각각 보고 의무 발생
- 초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바뀔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9.1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행 규정을 최종 채택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8.6)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jhsong_a@kotra.or.kr)



무역관 행사안내

□ EU 집행위원회 제2차 FAQ 기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 목적 : '26.8.12일부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주요 규정 및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대응사항 안내
- 일시 : '26.8.20(목) 한국(KST) 16:30~17:30 / 벨기에(CEST) 9:30~10:30
- 프로그램 (* 한국시간 기준, 참가신청 이메일로 추후 zoom 링크 전달 예정)

시 간	내 용	연 사
16:30~16:35 (5')	개회	-
16:35~16:45 (10')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	신인규 환경관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16:45~17:30 (45')	PPWR 핵심 의무사항 및 기업 대응 - 2차 FAQ를 중심으로	강지숙 차장 KOTRA 브뤼셀무역관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또는 QR 코드 스캔 통해 신청서 작성
*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RydEMTbhypYxAHWW9>
- 신청기한 : '26.8.19(수) 한국시간 18시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조기철 과장(starofjihak@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720229	반덤핑	관세유지	러시아, 중국	'26.7.28
화학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29062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29163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기타	폴리아미드 원사 (Polyamide yarns)	540245, 540261, 540251, 540231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바이오디젤 (Biodiesel)	2710, 2710 3824, 3826, 1516, 1518	상계관세	재심개시	미국	'26.7.31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순환경제	철강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규정(ESPR) 위임법 제정위한 증거 수집	5.20~8.12	링크
보건	담배 규칙 개정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 수렴	5.18~8.14	링크
ESG	공급망 실사(CSDDD)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증거 수집	6.12~8.14	링크
디지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초안 의견 수렴	7.2~9.7	링크
디지털	반도체법 2.0(Chips Act 2) 초안 의견 수렴	7.2~9.10	링크
디지털	신규 클라우드·AI 개발법 초안 의견 수렴	7.2~9.29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에 따른 EU 관심 프로젝트·프로그램 목록 업데이트를 위한 의견 수렴	7.16~8.13	링크
환경	EU ETS2 세부 시행규정 관련 의견 수렴 ①인접국 컨테이너 환적항 리스트 업데이트 ②재정적 보상 세부 규칙	7.17~8.14	링크① , 링크②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화학	EU 유해 화학물질 수출입 규정 부속서 I 및 V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7.24~8.21	링크
순환경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 의견 수렴	8.6~9.10	링크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GMR26-04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7	EU 철강 관세율할당(TRQ) 국가별 배분 이행규정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6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5	EU의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규제 추진 동향	2026. 7월
경통리포트26-14	EU K-뷰티 시장 동향 및 규제 대응 가이드	2026. 7월



브뤼셀무역관 영상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EU 순환경제 규제(PPWR·ESPR) 대응 웨비나 – PPWR 파트 - '26년 하반기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